

한국학 학술대회 개막식 축하 메시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학 학술대회'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외동포들의 교육을 위해 힘써 오신 선생님 여러분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저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동포들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멀리 타향에서 조국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과 함께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600만 재외동포는 우리 민족의 힘ियो, 자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 의 위상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외동포사회는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에 이를 만큼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과 우리글은 이러한 재외동포사회를 하나로 묶어 주는 가장 중요한 구

심점입니다. 민족의 얼과 자부심은 바로 언어와 문화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뜻깊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정성으로 600만 재외동포가 더욱 단합하고 동북아 시대의 중심,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이룩해 나가는 데 모두 동참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번 행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